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3월 23일
제2045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환호송>



사순 제3주일 (다해)

제 1 독 서 탈출 3,1-8ㄱ.13-15 |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화 답 송 시편 103(102)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서 1코린 10,1-6.10-12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 음 루카 13,1-9 |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¹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²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³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⁴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⁵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⁶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⁷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⁸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⁹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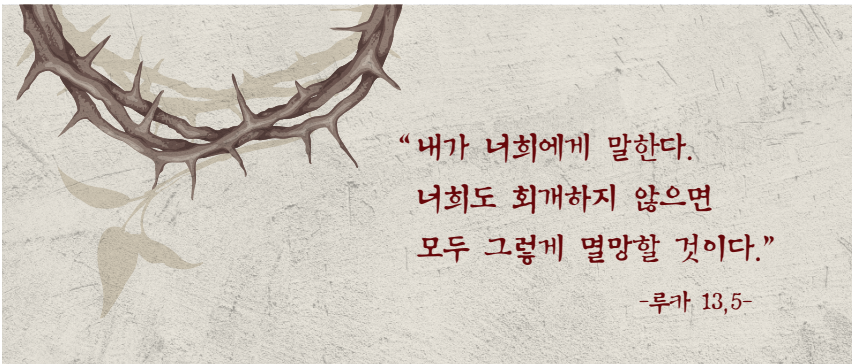
†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갈릴래아 사람들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자신들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벌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이러한 논리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루카 13,5 참조) 더욱 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회개를 참회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때에만 회개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분명한 죄를 지을 때까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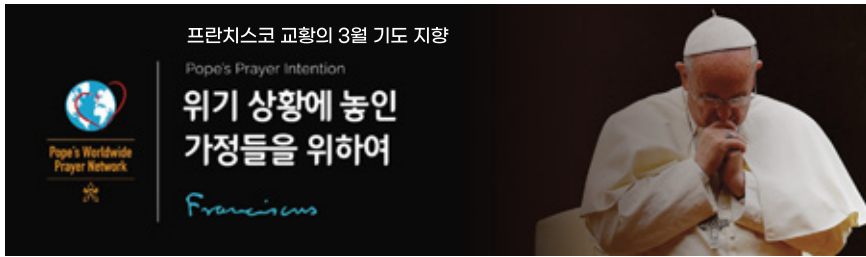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과 회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죄인의 개념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묶여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모든 인간이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부르시는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악을 피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자기 생활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 앞에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5,32)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절박함을 봅니다. 자신이 거름을 줄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자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포도 재배인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8,13)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한창현 모세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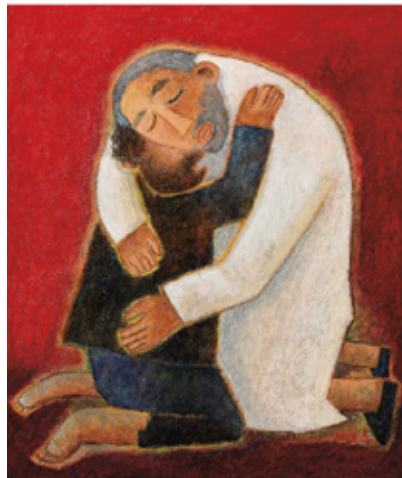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



“상처 입은 가정을 치유하는 약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완벽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쁘고 따뜻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합니다. 저마다 서로 다르고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죽었던 내 아들, 김옥순 수녀〉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갈등과 아픈 상처를 낳기도 합니다. 상처입은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다시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지요. 하느님의 인내는 무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용서는 언제나 가정을 새롭게 하며,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해피엔딩'이 불가능할 때에도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건네고 평화를 선사해 줍니다. 그 은총이 우리를 슬픔, 특히 원망에서 벗어나게 하거든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통회기도

-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를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 사순 시기 동안 판공성사를 보신 분들은 나중에 판공성사표를 받으신 후 사무실이나 고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The Light is On for You는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고해성사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성체조배, 묵주 기도 등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체현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지

우리 성당 성지 순례 계획 안내

우리 성당에서 추진하는 몇 년 간의 성지 순례 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지 순례는 배 다니엘 주임 신부님이나 양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동행합니다. 매 해마다 성지 순례 준비 전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통해 공지하고 성지 순례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성지 순례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9월 - 고국 성지 순례
11월 -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순례
- 2026년 4월말 5월 초 - 동유럽 성지 순례
- 2027년 4월 -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 2028년 5월 - 성모님 성지 및 메주고리에 순례

1 2차 헌금

- 다음 주일 (3월 30일)에는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BLA 기금은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 여러분의 약정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돕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BLA를 내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구 웹사이트(<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 ② QR 코드 스캔 후 크레딧카드 납부



- ③ 친교실에 마련된 BLA 약정 안내 장소에서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 헌금이나 수표를 쓰셔서 나누어 드린 BLA 봉투에 넣어 성당 입구 BLA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3 이번 주(사순 제3주간) 모임 및 피정 안내

- 요한회 : 오전 11:30, 하상관 110호
- 사순 영상 피정 : 오후 12시, 친교실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 오후 3시, 성당
- 회장단 회의 : 3월 26일(수), 6시
- 베드로회 자매 모임 : 3월 28일(금), 친교실 B-4

4 다음 주일(사순 제4주일) 모임 안내

- 루카회 : 3월 30일(일) 오전 11:30 (B-3,4)

5 사순 특강

- 일시 : 4월 5일(토) 오후 7시 (토요 특전 미사: 저녁 6시)
- 주제 :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 강사 : 양시균 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6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 /구입

- 일시 : 4월 5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Office
- 문의 : 흥의훈 요셉 연령회 회장 (703) 966-8206

7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부제서품

- 일시 : 4월 26일(토)
- 장소 : St. Thomas Moore 주교좌 성당
-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부제 서품이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참석이 어려워도 부제 서품을 받는 우리 신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제86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5월 4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김은숙 스텔라 (412) 523-1792
- 예비신자 모집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 십자가의 길 봉사 -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 십자가의 길 주송과 복사 봉사자들은 게시판을 잘 확인하여 봉사 날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 St. Lucy Project

- 교구 자선 단체에서 사순 시기 동안 불우 이웃을 위해 식료품(캔, 박스), 위생 용품(삼푸, 치약, 칫솔, 물티슈, 세탁 세제)을 받습니다. 도네이션 박스는 성당 입구와 친교실, 하상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1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안내

- 사순 시기 동안 학생 미사 전 1시 15분부터 십자가의 길(Stations of the Cross)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CYO WorkCamp 봉사자 모집

- WorkCamp 일시 : 6월 21일(토) - 6월 27일(금)
- 장소 : Shenandoah County, VA
- 2025 WorkCamp에 참가할 남자 크루 리더와 컨트랙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숙소 및 식사 제공)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13 부활 맞이 제대 꽃 봉헌 받습니다

- 성당 입구에서 제대회를 통해 꽃 봉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판공 성사 안내

- 일시 : 4월 8일(화) 오후 2시 - 5시, 오후 7시 30분
- 당일 저녁 미사는 7시에 봉헌됩니다. 미사 후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 기원 서한 필사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지향하며 신부님의 서한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 신청 기간 : 4월 6일(일) 교중 미사 후까지
- 필사 시작 : 5월 4일(일) 시작
- 필사 마감 : 서한 필사 다 하실 때까지
- 준비물 :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집, 필사 노트 등
- ※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집과 필사노트는 신청하시면 판매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 성인학교 불학기 총 119명 등록

- 모든 수강생들이 불학기 수업을 들으며
- 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황님 축복장 신청 마감

- 총 55명의 교우분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 빠른 시간 안에 축복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3/23 이번 주	스프링필드 구역
03/30 다음 주	프린스 윌리엄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3월 16일 (사순 제2주일)

봉헌금	\$ 8,766.73
교무금	\$ 8,940.00
교무금(신용카드)	\$ 2,710.00
온라인 봉헌	\$ 2,815.00
합계	\$ 23,231.7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3월 27일(목) 오후 5:00 - 6:00
2025년 3월 28일(금) 저녁 8:00 - 9:00
2025년 3월 30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바이블 무브 : 제3회 -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느님"
- 손님님 즈가리아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 주세요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